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기도 제목:우리가 구해야 하는 세 가지 성경:마태복음 6장9-15절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6:9-15)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겠지만,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 원하셨다.

수많은 소원 기도들 가운데 주기도문도 살짝 곁들여서 기도하기 원하셨을까?

아니면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일맥상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래야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에는 크게 세가지의 기도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

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관한 기도이다.

세 번째는 선포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문은 워낙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니만큼 당연히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소원기도들 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리라.

이 기도는 의무감이나 교리적인 기도가 아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구해야 할 기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무엇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다.

첫 번째 기도도 세밀하게는 세가지로 나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달라는 기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거나 놀라거나, 경외감을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다. 온 인류가 놀랄만한 사건이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한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놀라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싶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이다.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중얼거려야 할 기도제목인 것이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부흥을 꿈

꾸는 것이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분명히 올 것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이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변하고 나라 전체가 변하는 사건이 왕왕 있어왔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흥이 그 나라에 임했을 때 가능했었다.

이제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해야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부흥을 기도하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도이다. 나라의 국법 구석 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국법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의 헌법이나 제도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 후 미국은 온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하였다.

영국에 왕권을 복주신 하나님. 스위스의 칼빈주의, 독일의 루터주의, 네델란드의 장로교, 덴마크, 스웨덴의 장로교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세상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크게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도 세밀하게는 세가지로 나뉜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에 관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제목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물론 일용한 양식만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 가지 소원들을 구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감사하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온 인류에게는 아직도 절실한 것이고, 앞으로는 간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것이다. 나도 용서 받아야 하지만, 나 또한 열심히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을 마치고는 용서의 문제를 바로 이어서 다루심으로 얼마나 용서의 문제가 심각하게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용서는 끊임없이 필요하다. 날마다 필요하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 수 있다. 방심하면 시험에 든다. 방심하면 엉뚱한 생각에 휘말린다. 누군가 곁에서 조금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쪽으로 휩쓸린다. 그게 사람이다.

신앙심이 깊은 얽든 얽든 마귀는 서슴치 않고 달려든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라도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없던, 외모가 탁월하던 그렇지 않던, 학식이 많던 적던, 젊던지 나이 들었는지, 인격적으로 원만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주일성수 잘하며 예배에 성실하면 훨씬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영적 리더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교인들끼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경건생활(헌금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감사, 기쁨, 행동)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남을 용서하고, 자신도 할가분하게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주제에서 승리하면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셈이다. 그 위에 도약이 있고 도전이 있고, 지위향상이나, 삶의 장소 이동이 가능해 진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노래 가사 외우듯이 하지 말고, 아무런 감정이나 감동이나 소망이나, 기대감이나, 찬송하는 마음도 없이 하지 말자.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붓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기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반사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손을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감싼다.

마지막 기도는 선포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자.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원하자. 그 통치가 더욱 강력해 지기를 선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찬송하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돌리자.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다. 그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던지 그 삶은 위대하게 변한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게 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공급되고 뜻밖의 기회와 복이 주어진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우리가 심지어는 패배의 자리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위기에 처했더라도, 그 고통의 자리를 단순간에 승리의 자리로 변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이다.

무너졌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죄책감으로 부끄럽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은 힘을 잃고 마귀의 조롱도 소멸된다.

그것이 세 번째 기도의 위력이다. 우리는 죽어도 마귀를 웃게할 수 없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여러분을 카페로 초대합니다
말씀:열왕기상19장1-8절

1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4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아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렐에 이르니라

(왕상19:1-8)

커피 이야기

볶음 이야기

커피와 영혼

적도를 중심으로 한 커피의 재배

우리나라는 맥심과 초이스 달콤한 맛.

미국은 아메리카노,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와 라떼. 베트

남은 사이몽, 네덜란드는 더치커피.

드립의 방식으로는 칼리타와 고노와 비니엄.

쓴 맛을 없애라! -우리는 슈가와 크림사용. 달콤하고 구수한 맛만 남게 됨.

그러나 커피에는 각종 향과 쓴맛과 신맛과 진한 카페인맛, 달콤하고 구수한 맛 (살짝 니코틴 맛)등 여러 가지 향과 맛이 있다.

에스프로소는 커피의 모든 맛을 진하게 내린다.

더치는 향과 진하고 구수한 맛과 와인맛이 있다. 숙성시킨다.

아메리카노는 쓴맛과 구수한 맛이 있으며 쉽고 간편하다.

칼리타는 향과 맛을 잘 살린다.

비니엄은 향을 잡고 카페인을 최소화하고 쓴맛을 제거하는 특별한 방식이다.(한국사람 개발)

시럽은 진한 쓴맛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나 향을 비롯한 다른 맛들 까지 제거된다.

커피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나눌 수 있다.

향이 있고 차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다.

커피의 카페인을 각성효과를 준다. 차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높여준다.

칼리타나 비니엄은 커피 + 문화적 만족감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커피라는 문화를 통해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복음전파가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문화를 통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영혼으로의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우리가 커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